

제37대 간협 회장 신경림 교수 선출

■ 2018-2019년 대한간호협회 임원 ■

임원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회장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제1부회장	곽윤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
제2부회장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
당연직 부회장	병원간호사회장	3월 8일 총회에서 선출
선출직 이사	강윤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박경숙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박미영	건국대병원 간호부장
	손혜숙	강원도간호사회 회장
	송라윤	충남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감사	조정숙	서울대병원 간호본부장
	탁영란	한양대 간호학부 학부장
감사	박순화	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용규	고려대 구로병원 간호부장

간협 대의원총회

곽윤희 제1부회장 - 김영경 제2부회장

당연직 부회장으로 병원간호사회장 확정



대한간호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간호협회를 이끌어 갈 회장단이 선출됐다. 신경림 회장(사진 가운데)과 곽윤희 제1부회장(왼쪽), 김영경 제2부회장(오른쪽).

대한간호협회 제37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제1부회장에는 곽윤희 전 병원간호사회장, 제2부회장에는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장이 확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제8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21~22일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고 앞으로 2년(2018~2019년) 동안 협회를 이끌어 갈 신경림 회장과 함께 선출직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뽑았다. 당연직 부회장으로는 간호협회 정관에 따라 병원간호사회장이 확정됐다.

총회에서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 간호수가 개선활동, 간호정책연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제도 개선활동, 회원복지사업 활성화, 간호사 보수교육 질 관리 강화, 간호정책 대국민 홍보활동, 간호사 이미지 향상 활동,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운영, KNA에듀센터 운영,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운영, 간호사 인권센터 운영, 통일시대 대비 간호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대의원총회 개최식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로 국민건강 증진' 주제로 21일 오후 1시에 시작됐다.

이 자리에는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유성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병두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홍경희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이미경 경기도 수원시의원, 유혜경 전남 목포시의원 등 간호사 출신 지방의원이 참석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석휘 대한약사회장, 이육기 대한조산협회장,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최미영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민승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영희 전 대한간호협회장(전 국회 의원), 김조자 전 대한간호협회장, 이에주 전 국회의원, 간호사업자문위원과 원로회원, 전인 대의원총회 의장, 역대 나이팅게일기장 수상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협회는 지난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신 성원과 뜨거운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우선 "간호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결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6등급 이상인 병원의 경우 '아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선정기준이 허가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는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도록 해 중병병원 간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방문간호 활성화,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부터는 방문간호 급여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5% 인

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학교보 간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뤄내 학교에서 저할당 소크로 쓰리진 학생에게 보건의료사 투약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생들도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사 수요 증가로 인해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확보가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환자안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제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숙련간호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 보상체계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이며, 이를 인적 지원 중심의 수가 보상체제로 개편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를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OECD 국가평균의 두 배 이상인 과잉 병상 및 과잉 의료이용량을 축소시키고 지역사회 보건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의료전달체계 마련으로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난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슬로건으로 2017 간호정책포럼을 열고 1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면서 "협회는 최선을 다

해 정책과제를 실현시켜 간호사가 지속근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7년에는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간호사의 인권문제가 큰 이슈가 됐다"면서 "협회에서 설립한 간호사 인권센터는 간호사 회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신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사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수 회장은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선거를 통해 제37대 집행진을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뤄 놓은 효율적 조직력, 전문성, 사회적 이미지, 국제적 위상을 토대로 더욱 큰 도약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강도대 보건의료정책실장 대독)은 치사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간호계와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대의원들이 기립한 가운데 일생을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하다 타계한 간호계 영령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간호사 윤리선언'을 권명옥 군간호사회장이 낭독했다.

'건의문' 낭독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 대책에 신규 및 재직간호사 이직 방지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실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사 인력 기준 상황 조정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 △의료법 간호사 업무 규정에 근거해 의료법 하위 법령 및 여타 관계 법령의 신속한 정비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이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건의문은 서순필 간호협회 제1부회장, 결의문은 김남초 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낭독했다.

시상식에서는 지난 한 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간호사들이 상을 받았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상= 황순연(전 동아대병원 간호부장) 이경희(전주성심병원 간호부장) 최애신(서울부민병원 간호부장) 김숙정(광주보건의료교수) 이연옥(국립암센터 병동간호과장) 김명희(강릉영동대 교수) 소선녀(전북 김제시 상정보건진료소장) 강경화(전남 장흥군보건소 지방간호주사) 최명심(포항세명기독병원 간호본부장) 김연희(서울이산병원 간호부원장)

◇올해의 간호인상= 정순복(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장)

◇공로패= 윤원숙(전 군간간호사회장) 조성희(전 보건진료소장회장) 김경희(전 정신간호사회장) 이금재(전 노인간호사회장)

◇공로패(정년퇴임)= 이은주(대한간호협회 관리본부장) 김의경(서울시 간호사회 사무처장) 이경숙(강원도간

호사회 사무처장)

◇간호정책학술상= 김현원(대사·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최범내(우수상·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 조분선(장려상·한양대 석사) 박수연(장려상·간호공학연구소 대표) 장은주(장려상·간호사)

◇제29회 대한간호학술상= 성소령의 3인(우수상·서울아산병원) 최정은 외 2인(장려상·고대 안암병원) 천유미 외 1인(장려상·가천대 길병원)

◇제38회 간호문학상= 송성연(소설 단상작·주원공과대 2학년) 최혜지(소설 가작·대구가톨릭대 4학년) 장화숙(수기 단상작·서울시 서남병원) 정재현(수기 가작·분당서울대병원) 이숙련(시 단상작·동원과학기술대 교수) 오금숙(시 가작·메디파마제약요양병원) 허수정(수필 단상작·명지병원 암통합치유센터) 공정원(수필 가작·울산대병원)

◇근속상(10년)= 김미아(경기도 간호사회 사무처장) 이영미(대한간호협회 운영지원국장)

◇대한간호협회 우수중양간호봉사단상= 박준웅(뉴고려병원) 강은영(중앙간호봉사단) 송재윤(동국대 일산병원) 김민아(청주대) 현서연(경북대)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대의원들은 테너 김지현 씨의 선창에 따라 대한간호협회 회가를 함께 불렀다.

(2면에 계속)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좋은 화장품 고르는 방법
체초사를 확인하세요!

당신이 늘 쓰는 것이기에

우수한 화장품을 만드는 기준, CGMP
대한민국 최초 CGMP 1·2호 인증 획득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화장품,
한 걸음씩 우직하게 내딛는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한국콜마가 만들어 갑니다.

